

공동체 소식

성탄시기/연중시기

- 성탄시기는 예수성탄대축일(12월25일)부터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이 구세주를 통해 이 세상에서 시작됐음을 알리는 **주님공현대축일**(1월 2일과 8일 사이 주일)과, **주님공현대축일**부터 주님세례축일(공현대축일 다음 첫 주일)까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성탄시기는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하면서 요르단 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받은 것을 기념하는 주님세례축일로 막을 내립니다.
- 오늘 미사 후 구유와 성탄트리를 함께 정리합니다.
- 13일(월)부터 연중시기가 시작됩니다.
- 본당 2020년 달력은 원하시는만큼 가져가시면 됩니다.

The Archbishop's Call to Share (ACTS)

- 교구장 주교님의 ACTS강론과 appeal 영상이 있습니다.
- ACTS에 동참하실 분들은 12일(일)까지 총무에게 제출해 주시면 모아서 발송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구유예물도 ACTS로 보내겠습니다.

설 합동위령미사

- 19일(일)은 설 합동위령미사로 봉헌됩니다. 미사 지향은 정자체로 써서 봉헌해 주십시오. 19일 주일미사로(매일미사 101쪽) 봉헌되며 "설 합동 위령미사 지향과 보편지향 기도와 장엄강복만 설 미사(매일미사 125쪽) 양식"으로 봉헌됩니다.

신앙생활봉헌서 제출 안내

- 신앙생활봉헌서 작성하신 후 미사 봉헌때 또는 본당신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 구역/반에서도 공지해 주십시오.

첫고해성사(First Confession)

- 첫 영성체를 한 4명의 학생들은 19일 오전 10시 30분 첫고해를 하게 됩니다.
- 강윤후(그레고리오), 강미정(클라우드리아, 김하울(루카), 차한나(가브리엘라)

주일학교 봄학기 개학

- 19일(일) 주일학교 봄학기 개학합니다.
- 주일 오전10시 나자렛관(8901 Haskins st.)

평협회

- 19일(일) 오후 1시 나자렛관
- 독서자 모집합니다. 전례부에 문의 바랍니다.

제의(chasuble)

- 본당 제의 구입을 위한 donation 받습니다. (흰색,녹색,홍색,자색,분홍색)
- 마감 : 19일(일)

바오로딸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 학생모집

- 과정 : 입문/중급/성바오로 신학영성 중 선택
- 방법 : 우편과 이러닝(동영상강의) 성경공부
- 원서 : <http://uus.pauline.or.kr>
- 문의 : 2020.1.31마감,02-944-0819~24, 010-5584-8945

가톨릭교리신학원 신입생모집

- 2020학년도 통신으로 배우는 신학과정
- 원서접수 마감 : 2020.02.07(금)
- 포스터 및 리플렛 참조

교무금 계좌이체 안내

- 교무금 계좌이체를 원하시는 분은 재무부장(차장)통해 필요한 정보를 받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구역/반모임 안내

- 3구역 17일(금) 저녁7시 고영방 스테파노 가정
- 4구역2반 31일(금) 저녁7시 차호섭 요셉 가정
- 2구역 미정

전례 상식

- 주일헌금은 자선행위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 무엇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일주일간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주신 은혜에 다시 내가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 행위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정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 성당의 중심은 제대입니다. 또한 중앙통로는 전례때에 주로 사용합니다. 제단에 드나들거나 제대 앞을 지나는 이는 모두 제대에 깊은 절을 해야 합니다(주교예절서 72항 참조). 독서자는 독서대에 오르기 전에 미사 전례의 중심인 제대를 향하여 절을 합니다.

전례 성가

	입 당	예 물	성 체	파 건
금 주	481	219	170	1
차 주	25	510	160	437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김대연 요셉	박태주 로마노	김명희 리드비나
차 주	최은미 아네스	차호섭 요셉	조지연 마리아

미사 복사

	시중복사 1	시중복사2
금 주	고평원 프란치스코 김정원 안젤라	강미정 클라우드리아 김하울 루카
차 주	김정빈 바오로 김지안 요한	김가온 토마스 차한나 가브리엘라

헌금 봉사자

금 주	이우영 가브리엘, 김동술 요한
차 주	홍순익 마르티노, 차상욱 펠릭스

애찬 봉사자

금 주	9조: 김명은, 한춘희, 최선윤
차 주	설날, 행사 2조팀 (6-10조)

천주교 캔사스대교구 복자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한인성당
Blessed Jeong, YakJong Augustine Korean Catholic Community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수요일: 7:30 PM
첫 토요일: 10:00 AM
(신심미사)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신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대교구 한인성당

복자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한인성당

Blessed Jeong, YakJong Augustine Korean Catholic Community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www.kkcatholic.org

주임신부 박중수 펠릭스
korean1481@gmail.com

회장 고영방 스테파노
(913) 227-9040

총무 박태주 로마노
(610) 212-9539

유아세례: 전례부에 신청

주일학교: 주일오전10시
나자렛관

오늘의 전례

오늘은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대한 순종과 예언의 성취를 위하여 겸손하게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에게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도 주님의 세례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세례에 감사하며 하느님의 자녀로서 그 품위에 걸맞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합니다.

그림 묵상

예수님이 세례를 받습니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고 요한 세례자가 말한 바로 그분입니다. 영원으로부터 계시는 하느님 말씀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을 뿐 아니라 당신 신발 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는 사람에게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분의 세례는 당신 자신의 뜻보다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 모습이 하느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강물이 춤을 춥니다. 물고기들이 함께 기뻐하며 뛰놀니다.겸손하게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생각을 품고 좋은 일을 할 때 세상이 기뻐하고 춤을 출 것입니다.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그림: 정미연 소화데레사 | 화가, 글: 이창훈 | 기자

제 1 독 서 : 이사야서 42,1-4.6-7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이다.>

화 답 송 : ◎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 하느님의 아들들아, 주님께 드려라. 그 이름의 영광 주님께 드려라.

거룩한 차림으로 주님께 경배하여라. ◎

○ 주님의 소리 물 위에 머무네. 주님이 넓은 물 위에 계시네.

주님의 소리는 힘차고, 주님의 소리는 장엄도 하네. ◎

○ 영광의 하느님 천둥 치시네. 그분의 성전에서 모두 외치네.

"영광이여!" 주님이 큰 물 위에 앉아 계시네.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

제 2 독 서 : 사도행전 10,34-38

<하느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복 음 : 마태오 3,13-17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영이 당신 위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생명의 말씀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딸인 우리!



성탄 시기의 마지막 날 맞이하는 주님 세례 축일은 평범한 나자렛 생활을 접고 하느님 나라의 오심을 선포한 예수님의 공생황이 시작된 날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 하기까지 이어진 공생황의 출정식으로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으로 인도해주시기 위해 손수 인간이 되시어 오신,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스스로 세례를 받고자 하셨을까요? 세례자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오히려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는 게 정상인 것으로 보이는데, 무엇 때문에 세례를 받기로 하셨을까요? 이렇게 해야만 모든 의로움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런 궁금증을 안고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고 강변으로 나오시는 예수님 위로, 성령께서 비둘기 모습으로 내려오면서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며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마태 3,17)

순간 이것이 예수님의 의도였구나 싶었습니다.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 하느님 마음에 드는 아들이심이 드러났듯이, 예수님을 따라 세례를 받은 우리 역시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딸, 하느님 마음에 드는 아들딸이 되는 것이 모든 의로움의 실현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깨달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낍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이 우리를 먼저 아들딸이라고 불러 주셨기 때문이며, 그러기에 하느님이 우리를 아들딸로 선택해주셔서 하느님의 아들딸인 것이 우리의 ‘신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모두가 자기 ‘아버지’와 잘 지낸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에 모두가 마냥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이자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가 체험한 그 ‘아버지’를 뛰어넘는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한 고통의 여정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느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부르셨고, 이제는 세례 받은 우리가 당신의 여정에 참여하여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딸이

되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세례를 통해 모든 인간이 사랑받는 아들딸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나는 이제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에서건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 주십니다.”(사도 10,34-35)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에도 잘 되는 일도 있겠고 잘 안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났건 못났건 우리는 모두 사랑받는 하느님의 아들딸입니다. 이것만 꼭 기억하면서, 역시 위로가 필요한 우리 이웃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면서 참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신희준 루도비코 신부

그림으로 보는 복음묵상



예수야, 예수야
세속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렴.
물아, 고마워.
오늘은 내가 나의 두려움을 씻어주었으니
내일은 내가 세상의 두려움을 씻으려 노력할께.
물아, 고마워.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마태 3:17)

임의준 신부 | 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

말씀의 이삭

은퇴 후 계획을 물으신다면



정년퇴직이 몇 년 남지 않으니 많은 분이 은퇴 후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저는 계획이 없습니다. '35년이나 한 직장에서 열심히 근무했으면 됐지, 퇴직 후에 또 무엇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또 새로운 노력을 해야 한다니, 게으른 저에겐 형벌이나 진배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돌아보면 제 인생에서 계획대로 된 것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기 때문입니다. 계획은 거창하지만 현실적인 여건들이 따라주지 않거나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계획이 무산된 일, 이리저리 궁리를 할 때는 영 안 되다가 시간이 지나서 저절로 이루어진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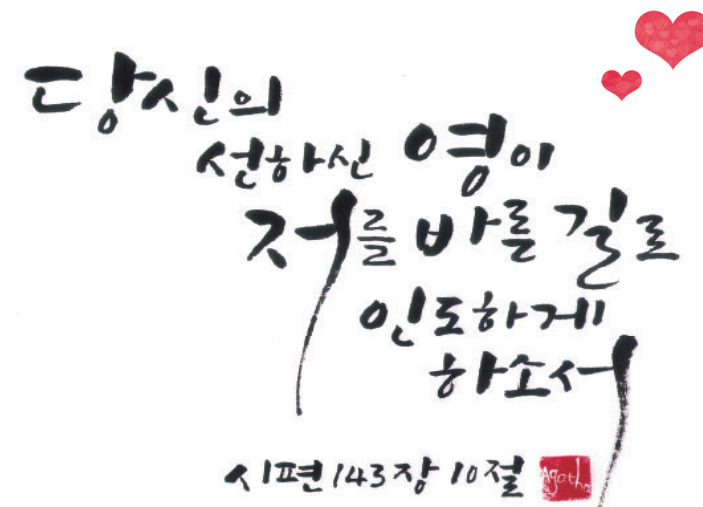
학창 시절 계획대로라면 '저는 의대나 치대에 입학했거나 (대학 입시 성적이 잘 안 나와서 실패)'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의, 치대를 못 가서 차선책으로 자연과학계열로 입학했으니) 실력 있는 과학자가 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고등학교에서 이과공부를 하고, 자연과학계열로 입학했지만 뒤늦게 이과 공부가 제게 맞지 않음을 깨닫고 대학교 3학년부턴 문과로 옮겨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입사원서를 내기 전까진 한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방송사에 입사해서, 라디오 클래식 음악 채널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모두 젊은 시절제 계획에 없었던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신교 신자인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한때는 동네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도 한 적이 있는 제가 어찌하여 뒤늦게 가톨릭 신앙을 갖게 되고 가톨릭커뮤니케이션 협회(SIG-NIS) 회장이라는 중책까지 맡게 된 것인지, 이 역시 제가 계획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설계자는 제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지난날 일이 제 계획대로 안 되어서 속상했지만, 나중에 살펴보면 그때 잘안된 것이 다행이었거나 오히려 더 잘된 일이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주님이 설계하시니 어련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언제나 제게 딱 맞는 더 좋은 것을 주시곤 했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 고려해서 맞춤형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하기에 퇴직 후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계획을 짜는 것이 부질없는 일 마냥 느껴집니다. 물론 하루하루, 일 주일, 한 달, 일 년 단위의 일상적인 일들에 대해선 실행방안을 세우겠지만, 대체적으로 인생의 큰 틀에서 내 의지로 계획을 세워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젠 더 고민하지 않으려 합니다.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보다는 주님이 주신 일, 이래저래 하게 된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그것만큼은 부끄럽지 않게 주님 마음에 들게 하고 싶니까요.

임주빈 모니카 KBS 심의위원,
시그니스(가톨릭커뮤니케이션협회) 서울 회장

나를 이끄는 성경구절



▣ 미사 후 뒷정리에 함께 하는 아름다운 손을 하느님께서 기다리십니다.
- 1월 12일 주일 성당/지하식당 청소합니다.(4구역)
- 매 주일미사 후 간단하게 뒷정리 합니다.

정재준 아가다 | 천호동 성당